봉선사, 청년 함성 속 전법 싹 틔우다

경동대 이어 3개 대학 4개 불교동아리 창단

3월 17일 청년연합법회 봉행
양주시 서정대, 한 대학에서
국내·국제 불교동아리 만들어
기독교 사립 신한대서도 결실
상월결사 운영지원금 전달해



경동대에 이어 서정대, 경복대, 신한대 불교동아리 창립을 이끈 봉선사. 3월 17일 동아리 창단식을 겸한 연합법회가 끝나고 스님과 학생들이 청풍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양주 봉선사=윤호섭 기자

지난해 11월 경동대 불교동아리 창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학생 전법에 나선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이달에만 인근 지역 3개 대학에 4개 불교동아리 창단을 이끌며 운악산을 청년들의 함성으로 가득 채웠다.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3월 17일 경내 청풍루에서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단식과 정기 청년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은 양주시 서정대, 남양주시 경복대, 의정부시 신한대에 각각 불교동아리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고, 동아리 운영을 돕기 위한 법석으로 마련됐다. 특히 서정대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불교동아리를 따로 창단하고, 신한대는 기독교학교에서 50명이 넘는 회원을 모아 정식 동아리로 등록해 의미를 더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생 전법의 결실을 맺은 만큼 법회에는 많은 스님들이 동참해 대학생불자들을 격려했다. 법회에는 사단법인 상월결사 이사장인 돈관 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능엄학림학장 정원 스님과 전 교구장 철안 스님,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 서울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 파주 보광사 주지 혜성 스님, 양주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보관 스님과 혜성 스님, 도일 스님은 교구본사에 전법기금 각 2000만원을 전달하며 원활한 대학생 전법이 이뤄지길 기원했다.

각 동아리 임원진 임명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대신해 상월결사 이사장 돈관 스님이 맡았다. 스님은 5개 동아리 회장과 부회장, 총무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불자로서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스님은 또 동아리마다 상월결사의 운영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돈관 스님은 "감동이라는 말을 평소 잘 쓰지 않는데 이곳에 와서 큰 감동을 느낀다. 전국 대학이 400개 정도 있는데 기독교대학에서도 불교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 자신부터 용기가 난다"며 "상월결사의 정신이 전법이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 여러분을 보면서 한국불교의 큰 미래가 보인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돈관 스님에 이어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각 동아리에 창립지원금 100만원씩을 전달하고, 호산 스님도 교구본사 차원에서 각 대학에 500만원, 봉선사 청소년법회에 300만원, 광동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에 100만원씩을 지원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자승 대종사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친필 액자를 동아리마다 전달하며 신심 깊은 청년불자로 거듭날 것을 기원했다. 선업 스님은 대학생들과 함께 "우리는 청불인, 미래불교 지킴이. 지금 행하고 바로 전하고 함께 누리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고 외친 뒤 "이 구절을 잘 명심해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동아리 창립을 축하하고 또 축하한다"고 말했다.

주지 호산 스님은 각 동아리 지도법사를 임명했다. 서정대 국제 불교동아리는 인공 스님, 서정대 국내 불교동아리와 신한대는 혜명 스님, 경복대는 묘수 스님이 각각 지도법사를 맡았다.

호산 스님은 "무엇보다 오늘의 주인공은 동아리 교수님과 회원들이다.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정한 불자가 되길 당부한다"며 "다음 연합법회는 법당 밖에서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신불산 케이블카, 자연훼손 막대"

통도사 · 시민환경단체 연대해
울주군 케이블카 사업 반대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망치는 개발사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통도사는 3월 21일 울주군청 앞에서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궐기대회에는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를 비롯해 울산불교환경연대,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이 연대했으며, 통도사 본말사 주지 스님 및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해 케이블카 사업을 규탄했다.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장 현범 스님은 "영남알프스 자연경관은 길이 보전해야 할 공공재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로 허가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특혜"라고 성토했다. 이어 "울주군 스스로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노선이라 평가한 곳인데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영축환경위원 진각 스님은 "케이블카 설치는 통도사 수행환경의 훼손을 초래하고 세계문화유산 산지승원 통도사의 자연적 문화적 가치에 심각한 침해를 가할 것"이라 우려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화평 스님도 "통도사 수행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개발의 공업은 현 세대는 물론이고 후대의 자손들이 짊어질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사부대중은 다라니 기도와 정근, 〈자애경〉을 함께 독송하며 생명나눔 기도를 이어갔으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결의를 굳건히 다졌다. 규탄은 계속돼 안승찬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와 울산환경연대 천도 스님, 원각사 반산 스님의 성토로 이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오세훈 시장, 입장 명확히 하라"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특위
이승만기념관 건립 관련
서울시 관계자들과 면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송현녹지광장 부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 종교편향불교왜곡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가 오세훈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편향특위는 3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최경주 서울문화본부장, 박찬구 정무특보와 면담을 갖고, 서울시가 종교 중립의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선광 스님은 "이건희기념관 외 송현동을 시민공간으로 남겨두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승만은 역사적으로 공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송현동을 시민공간으로 남기겠다는 약속을 확언할 때까지 저항하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최경주 문화본부장은 "이승만기념관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다만 소통이 잘 안 돼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잘못된 전달로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지난 2월 23일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현재로서는 (이승만기념관 부지로)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는 곳이 송현광장"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종교편향특위는 마치 송현광장이 이승만기념관 부지로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오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선광 스님은 "오 시장의 발언은 분명 송현광장을 부지로 확정하고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뉘앙스였다"며 "이에 대해 오 시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불교계는 공론화 이후에 설득하면 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문제가 많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불교계를 배제하려는 오 시장의 태도에 불쾌감을 표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서울시의 태도도 지적했다. 부지 마련 등 이승만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건립추진위원회가 맡아야 함에도 이를 서울시가 대신 해주고 있다는 것. 선광 스님은 "서울시가 건립추진위원회의 일을 대신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종원 스님(중앙종회의원)은 "종교편향특위는 종교를 떠나 이승만이 시민공간에 기념관을 세울만한 인물인가에 대해 의견을 전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종교계뿐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조속한 시일 내 오 시장의 입장 표명이 없을 시 행동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민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앞 불교공약 발표

전통문화불교특위 출범…전통사찰 규제완화 강조

지난달 국민의힘이 불교분과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불교계 표심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3월 20일 중앙당사 4층 회의실에서 전통문화불교특위 출범식을 열고 불교계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불교계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동안 정치권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통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불교문화 발전과 개선에 앞장서겠다.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 우수한 불교문화가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배 전통문화불교특위 위원장은 "불교문화를 포함한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민주당이 해내겠다"며 "불교의 화쟁 정신을 비롯해 불교적 가르침대로 평화와 화합의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통문화불교특위는 이날 불교계를 위한 공약으로 △전통사찰 기능 회복을 위한 토지 이용 제한 등 규제 완화 △불교문화유산 지원 사업 강화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3가지를 발표했다.

김영배 위원장은 "불교정책공약은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마치고 발표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통문화불교특위와 함께 불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지속적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출범식 전 당사를 찾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전통문화불교특위에 지난 13일 발표된 〈국민 행복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민우 기자 alsdn285@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